

HYUNDAI
MOTOR GROUP

정호승
새해의 말과 햇살 하나가
중에서

사랑하는 일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
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다시 길을 가게 합니다

해 뜨는 곳으로 걸어갑니다
새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갑니다
누님 같은 소나무가 빙그레 웃는
새해의 아침이 밝아옵니다

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
2026년은 더욱 빛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